==========

17/04/23(주) 주일예배 / 제목 : 서로 사랑하라(요13:34~35) p.171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와 남원 중간쯤에 위치한 오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개인(金鎧仁)이라는 사람은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잔치를 다녀오던 김개인이 술에 취해 풀밭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불이 일어나 김개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이때 불이 계속 번져오는데도 김개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그가 기르던 개가 근처 개울에 뛰어들어 몸을 적신 다음 들불 위를 뒹굴어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들불이 주인에게 닿지 않도록 여러 차례 이런 짓을 반복한 끝에, 개는 죽고 말았으나 김개인은 살았다고 합니다.

김개인은 잠에서 깨어나 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며 개의 주검을 묻어주고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고 나중에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랐다고 하며, 훗날 '개 오'(獒)자와 '나무 수'(樹)를 합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獒樹)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애완견이며 충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같이 사랑이 메말라 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도 아닌 개의 한결같은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어서 생긴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은석 군이 자신의 부모를 토막내고 시체를 유기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대로 죽이고 시체를 21토막을 내서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구내의 쓰레기통과 외곽 지역에 토막난 시신을 유기한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의 심리를 상담했던 이훈구 교수는 이 군과 상담을 하고난 뒤 사건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와 동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21살이 되도록 부모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입니다. 사랑과 애정에 대한 결핍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군의 부모들은 모두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의사 부부였지만 이은석 군은 학대와 모욕을 일삼던 차가운 어머니와 애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보여주지 않았던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형 역시도 어느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군은 늘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였으며 비교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 군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또 부모가 이 군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이런 가정의 그늘 밑에서 이 군은 사랑에 굶주

려 갔고,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고통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나기 며칠 전 그동안 맺힌 것들을 어머니에게 따졌을 때 '미안하다'는 한 마디만 했더라도 그렇게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거라는게 저자의 시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해' '널 믿어' 이 두 마디만 있으면 적어도 삐뚤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갑고 무관심하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며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커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살피는 이유도 결국은 모든 인성이나 태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가 펴낸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를 읽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 /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장면을 13장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주인이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저녁을 잡수시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미루고 아무도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은 그렇게 천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만찬 도중에 가룟유다는 식사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몰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모두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감내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손수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도 사랑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못했고 사랑 받을만한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를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사랑이 자리하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22:35~40) "(35)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사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도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채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도 사랑에 관한 계명을 충분히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하며 느끼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사랑의 말씀이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인 모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겠지!' 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직

접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대로, 또는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들을 볼 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에는 이방인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을 위해선 그렇게 하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끼리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백인이나 흑인, 늙은이나 젊은이, 자유인이나 종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상을 많이 가려서 사랑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며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편한 사람을 찾아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전도를 해도 사람을 가려가며 전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스타일도 내려놓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랑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일곱 번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일곱 번이 최대 용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삼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만큼 용서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참고 용서합니까? 일곱 번도 참기 어렵습니다. 두 세 번 말해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을 거두지 않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고집스럽

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의 징계는 하시지만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네 /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 오늘 나는 / 오늘 나는 / 주님 앞에서 몸 둘 바 모르고 /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 어찌 할 수 없는 이 맘을 / 주님께 맡긴 채로"

3.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적도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때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단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도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 어쩌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

"아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아빠는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진실한 사랑을 보여서 상대방도 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이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볼 때에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서로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서로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서로'란 일차적으로는 열 두 제자들 끼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봅시다.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일4:20)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앉혀 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가족부터 시작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부터 사랑합시다.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핵심 :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요약정리 /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1.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2.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3.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